

광주 대인시장 '남도달밤야시장' 개장...인파 '복적'

시·문체부추천...내달 한달간 매주 토요일 오후 5-10시 먹거리·공연 등 시장 활기...“테이블·주차 등은 개선돼야”

“야시장 개장 소식을 듣고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곳곳의 즐길 거리에 무더위도 잠시 잊게 되네요.”

지난 24일 오후 7시에 광주 동구 대인시장. 전날에 이어 남도달밤야시장이 개장,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남도달밤야시장은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일도시연구소가 주관하는 광주 최대 야시장 축제다. 무더운 여름 밤 시장을 찾는 이들은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체험행사 등에 호응했고 잇따른 방문객에 시장 상인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만개했다.

남도달밤야시장은 다음달 매주 토요일 오후 5-10시 운영되고, 8월 한 달은 선 뒤 9월에 재개장해 11월18일까지 토요일에 문을 열고 시민들을 만난다.

이날 시민들의 발걸음이 가장 많이 머문 곳은 ‘푸드코트’였다.

소시지, 닭강정, 수제 떡갈비, 해산물과 전 등 각종 주전부리를 판매하는 가게와 부스 앞마다 10-20여명씩 긴 줄이 늘어섰다.

짧게는 5분, 길게는 20분 이상 줄을 서야만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며 자신의 차례를 기꺼이 기다렸다.

이후 받은 음식들을 가지고 공연장과 시장 골목에 마련된 테이블에 앉아 담소를 나누며 시장에 활기를 더했다.

거리 중간마다 마련된 ‘백드롭 페인팅 체험’, ‘도에 체험’ 등 다양한 체험존은 가족 단위 방문객으로 문전성시였고, ‘달시소’, ‘인수민’ 등 아티스트의 공연을 보기 위해 대기하는 시민들도 만원이었다.

시장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갤러리에서는 광주지역 청년작가들의 작품들



광주 최대 야시장 축제인 대인시장 '남도달밤야시장'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개장했다. 남도달밤야시장은 8월을 제외하고 오는 11월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김예리 기자

이 전시·판매됐다.

대학생 황성진(26)씨는 “먹거리와 볼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 지난해

에 이어 또다시 가족과 찾았다”며 “가족 모두 올해도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아 역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웃었다.

다만, 일부는 자리가 없어 시장을 다 즐기지 못한 채 포장해 돌아갔고 주차

공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직장인 김모(34)씨는 “먹거리나 볼거리 등 축제 콘텐츠는 좋았지만, 이용객들에 대한 배려 공간이 부족한 듯하다”며 “주차공간이 없어 주위를 몇 바퀴 돌다 좀 떨어진 곳에 주차했는데, 테이블도 없어 음식만 포장해서 간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외에도 종이컵, 나무젓가락 등의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고 자리에 그대로 방치되거나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때문에 시민들은 추후 열릴 야시장에 선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길 바랐다.

어린 자녀와 함께 방문한 시민 박태연(42)씨는 “평소엔 마트를 다녀 전통 시장을 찾는 일이 없는데 야시장이 개장해 오랜만에 시장 구경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서 좋았다”면서도 “앉을 자리를 좀 더 많이 만들고, 쓰레기 처리 방안도 마련돼 더 많은 이들이 야시장을 좀 더 편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태호 기자

‘금품 제공’ 강종만 영광군수 1심서 직위상실형

벌금 200만원 선고...강 군수 “생활비로 준 돈, 항소하겠다”

선거 전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가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 1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기자가 명절용 과일 선물세트 판매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강 군수는 기자를 직접 만나 100만원을 줬다.

강 군수는 “돈을 준 것은 사실이나, 당시는 지방선거 후보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비위행위 주체가 아니고, 기부행위의 고의가 없었으며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역 행사가 활발히 참석했고, 출마를 거론한 언론사도 많았다”며 “선거 출마를 대비한 대화 문건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사건 한 달여 뒤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 당시 선거 출마를 결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했다.

이어 “생활비 명목이라고 하기에는 100만원이란 금액이 소액이라고 할 수 없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 군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강 군수는 “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 도움을 줬을 뿐이다. 판결이 대단히 불

법원 판결 2면

집행유예 기간 중 ‘또 필로폰’ 20대 실형

항정 사범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필로폰에 손을 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해림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항정)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B(29·여)씨

에게는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또 각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70만원씩의 추징금 가납을 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5월 총 4차례에 걸쳐 광주 서구 1층 원룸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지난 4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수수·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동종범죄 별건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지난 1월27일 형이 확정됐다. B씨 또한 같은 해 2월1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일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상태였다.

재판장은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재차 범행에 나간 점, B씨의 경우 자수한 점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복기

전자발찌 30대 ‘또 아동 성범죄’ 징역 9년

위치 추적 전자발찌(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또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가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 2년, 신상 공개 10년, 아동 관련 시

설 등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위협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김씨는 동종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7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까지 차고 보호관찰 중이었으나 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별건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함께 병합 재판까지 받았다.

A씨는 재판부에 두 달여 동안 33건의 반성문 제출과 전자발찌 기각 청구·외출 제한해제 청구·신상 공개 기각 청구 등도 반복해서 재판부에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아동에게 행한 범죄 행태 등에 비춰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아동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 집행이 종료된 지 7개월이 되지 않아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심각한 피해를 안겼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오복기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ra.com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 ▶ 안전기원제 고사
- ▶ 시 제 상
- ▶ 제 사 상
- ▶ 고 사 상

제사나라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부페